



24일 콜롬비아와 평가전...훈련 시작한 축구대표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21일 오전 경기도 파주 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평가전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대표팀은 24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콜롬비아와 A매치를 치르고, 28일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루과이를 상대한다. /연합뉴스

윤영철 “정교함으로 선발 노리겠다”

시범경기서 4.2이닝 무실점
실투 없애려 1구 1구 ‘신중’
평균구속 136km...스피드 과제

KIA 타이거즈의 신인 좌완 윤영철이 “1군에서 선발 한자리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윤영철은 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시범경기 8차전에 선발로 나와 4.2이닝을 소화했다.



윤영철

지난 16일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프로 첫 시범경기 등판에 나선 윤영철은 이날 60개의 공을 4회를 무실점으로 버텼다. 정교한 제구로 탈삼진 7개를 뽑아내면서 박수를 받았다.

21일 LG전에서는 71개의 공을 던지면서 4.2이닝 2피안타 3볼넷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 두 경기 연속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었다.

KIA 신인으로 유일하게 해외 캠프에 참가한 윤영철은 스프링캠프에서 WBC 대표팀과의 맞대결 등 3차례 연습경기에 나와 7이닝을 던지면서 7.71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한화 오그레디에게 투런포도 맞는 등 만만치 않은 프로를 미리 경험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윤영철은 프로 데뷔를 위한 리허설을 이어가고 있다.

윤영철은 “프로세계를 더 많이 경험한 것 같고, 캠프 전 보나 실력도 더 나아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더 성장한 시간이 된 캠프, ‘템포’에도 변화를 줬다

윤영철은 “템포가 느려서 피칭 템포를 더 빠르게 하려고 했다. 처음에는 계속 신경 써서 힘들고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좀 더 편해졌

고, 빠르게 해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연습 경기 등을 통해 ‘실투’에 대한 공부도 했다.

윤영철은 “실투했을 때 타자들이 치지않는 경우도 있지만 정타로 맞으면 멀리 나간다. 실투를 없애기 위해 1구 1구를 더 신중하게 던지고 있다”며 “맞으면서 배운 점은 실투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장점인 제구를 보여주고 있는 윤영철에게 스피드는 남아있는 숙제다. 21일 LG전에서 슬라이더(20개·123~131km), 체인지업(12개·120~126km), 커브(2개·120~123km)를 구사한 윤영철은 직구 최고 구속 140km를 기록했다. 평균속은 136km.

윤영철은 “구속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시즌 때 스피드를 올리려는 훈련 등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일단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야구는 오래 하는 것이니까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스피드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스피드의 아쉬움은 정교함으로 채우면서 선발 자리를 노리겠다는 각오다. 프로의 새로운 스트라이크존 적응도 끝나간다.

윤영철은 “이닝을 오래 끌어가야 하고, 자신 있는 제구력에서 좀 더 강점을 보여야 한다”며 “심판마다 다르기는 한데 최대한 스트라이크 존에 넣으려 하고 있다. 포수 형들 리드 따라가면서 최대한 반대 투구 안 나오게, 볼이 되더라도 그 코스로 던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막내’는 매일 프로의 새로움에 적응하고 배우는 게 즐겁다. 프로 데뷔전을 상상하면서 시범경기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릴 생각이다.

윤영철은 “시즌에 잘하려면 지금부터 잘해야 한다. 상대 타자들의 유형도 파악해야 하고, 어떤 공을 잘 치는지 어떤 공을 못 치는지도 타자마다 분석해야 한다. 상대도 날 분석하는만큼 나도 상대를 분석해야 하니 재미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확실히 고등학교와 다르게 응원을 하니 긴장도 되고 재미있는 것 같다. 응원 많이 해주시니까 좋다. 힘이 나는 느낌이다”며 “한 해, 한 해 좀 더 발전해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불펜 난조...시범경기 LG에 2-6 역전패



KIA 타이거즈의 ‘새 얼굴’ 김대유가 친정과의 맞대결에서 패전투수가 됐다.

KIA가 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시범경기 8차전에서 2-6 역전패를 기록했다. 전날 LG와의 경기에서 1이닝을 끝냈지만 실책이 나오면서 세 타자만 상대했다.

정주현-서건창-문성주를 상대한 3회는 삼자범퇴. 4회에도 김호영의 좋은 수비를 바탕으로 윤영철이 삼자범퇴를 기록했다.

0-0으로 맞선 4회말 KIA가 LG 선발 플러트코

락에 성공했다.

선두타자로 나선 이창진이 우전 안타에 이어 도루를 기록하면서 1사 2루를 만들었다. 김선빈의 타구가 우익수에게 잡혔지만 소크라테스가 우익수 기 넘는 2루타로 선취점을 올렸다. 황대인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면서 2-0이 됐다.

2점 차로 앞선 5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윤영철은 1사에서 홍창기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주면서 흔들렸다. 허도환을 유격수 땅볼로 처리했지만 다시 정주현에게 볼넷을 내주면서 윤영철의 등판이 4.2이닝 2피안타 3사사구 2탈삼진으로 마무리됐다.

2사 1·2루의 위기 상황에서 또 다른 좌완 고졸 신인 라도규가 등판했다.

라도규도 첫 타자 서건창에게 볼넷을 내주면서 2사 만루 위기를 자초했지만, 문성주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면서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다. 친구 윤영철의 자책점도 ‘0’으로 남겨졌다.

이후 KIA는 박준표-이준영-김유신을 투입했

고, 위기는 있었지만 실점은 없었다. 하지만 경기 막판 KIA가 피홈런에 올랐다.

8회 김대유가 출격해 손호영에게 중전 안타를 내줬다. 대주자로 들어간 신민재의 도루를 저지하면서 원아웃, 김주성은 3루 땅볼로 잡았지만 남은 아웃카운트 하나를 채우지 못했다.

송찬의에게 좌측 2루타를 맞은 뒤 홍창기를 볼넷으로 내보내면서 2사 1·2루가 됐다. 이어 김대유가 김기연에게 좌측 담장 넘어가는 홈런을 맞으면서 순식간에 2-3 역전을 허용했다.

김대유가 이후에도 볼넷과 안타로 흔들리자 전상현이 투입돼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9회말 다시 마운드에 오른 전상현이 연속 안타 뒤 송찬의에게 좌월 슬라이더를 맞으면서 경기는 2-6 역전패로 끝났다.

22일 하루 휴식일을 보내는 KIA는 23일 SSG 랜더스를 상대로 시범경기 일정을 이어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토틸넘 선배’ 클린스만 만난 손흥민 “화끈한 공격축구, 특별하고 기대 크다”

한국 축구의 간판스타 손흥민은 소속팀인 잉글랜드 토틸넘의 ‘레전드’였던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과 국가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추게 된 것에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손흥민은 21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대표팀 훈련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월드컵 이후 다시 소집하게 돼 무척 기쁘다. 새로운 감독님과 발을 맞춰볼 생각에 설레고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표팀 지휘봉을 새로 잡은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이 축구 선수로 성장기를 보내고 프로로 데뷔한 나라인 독일의 전설적인 공격수 출신이며, 1990년대 중후반 토틸넘에서 활약한 적도 있어 이번 소집은 이들의 첫 만남으로 관심을 끈다.

손흥민은 “매우 특별하다. 구단에서 선수 시절부터 감독님을 보신 분도 있고, 함께 생활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평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며 “구단에서도 좋은 분들 만나 다행이라고 하는 걸 보고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 귀띔했다.

이어 “감독님과 짧은 대화를 통해서도 얼마나 좋은 분인지, 선수를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다”며 “감독님이 스케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선수들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실지 등에 대해 대화했다. 전술적인 것은 아직은 특별히 얘기하지 않았고, 훈련하면서 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저희가 감독님에게 빨리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선수들이 훈련하면서 감독님이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시는지 빨리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선수는 많은 꿈을 넣고 경기에서 이기고 싶어한다. 매 순간 어렵다”고 털어놓은 그는 “감독님이 공격적인, 화끈한 축구를 하겠다고 하셨으니 선수들이 잘 맞춰가며 감독님이 원하시는 축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이 될 24일 콜롬비아(울산문수축구경기장), 28일 우루과이(서울월드컵경기장)와의 경기를 통해 모처럼 국내 팬들과 만난다.

/연합뉴스

광주FC, 미드필더 오후성 영입 전력 보강

광주FC가 대구FC에서 ‘만능 미드필더’ 오후성(23·사진)을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다.

173cm·64kg의 오후성은 날렵한 체격으로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드리블이 뛰어난 원이다. 또 왕성한 활동량과 뛰어난 패스 실력을 바탕으로 공격형 미드필더와 세도우 스트라이커까지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다.

대구 U-18 현풍고 출신인 오후성은 2018시즌부터 5년 간 대구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프로 무대와 R리그를 오가며 꾸준한 성장해온 그는 2021시즌에는 21경기에 나와 기대주로 주목받았다.

지난해에는 중국 산둥 타이산과의 AFC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F조 조별예선 5차전에서 득점에 성공하며 팀의 4-0 승리에 기여하기도 했다.

오후성은 “상대팀으로 마주하는 광주는 항상 결고려운 팀이었다. 지난 시즌 광주가 보여준 경기력과 엄청난

업적 또한 나의 도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팀이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늦게 합류한 만큼 성실한 모습으로 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해트트릭’ 광주FC 아사니, K리그 4라운드 MVP

K리그 2023시즌 ‘1호 해트트릭’ 주인공인 광주FC의 아사니가 4라운드 MVP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1일 K리그1 2023 4라운드 베스트11을 발표했다. 아사니가 MVP의 영예를 안았고, 엄지성-안영규-김경민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는 베스트팀과 베스트매치에도 선정되면서 4라운드를 지배했다.

전반 8분 두현식의 패스를 받아 원발로 첫 골을 기록한 아사니는 후반 23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가슴을 공을 잡은 뒤, 수비수 맞고 떨어진 공을 원발 발리슛으로 마무리하면서 멀티골을 만들었다.

이어 3분 뒤에는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이뤄진 프리킥 상황에서 환상적인 원발 중거리 슈팅을 날리며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특급 외국인 선수’ 펠리페에 이어 4년 만에 광주의 해트트릭 계보를 이은 아사니는 리그 1호 해트트릭 주인공도 됐다.

이날 광주는 엄지성과 이희균의 ‘마수결이 골’을 더해 5-0 대승을 완성했다.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은 뒤 이희균의 골에도 관여한 엄지성이 1골 1도움의 활약으로 베스트11에 선정됐다. 안정적인 수비로 인친 공격을 보제한 ‘캡틴’ 안영규도 명단에 포함됐다.

전반 종료 직전 수비진의 실수로 인한 역습 상황에서 파울을 기록한 뒤, 페널티킥을 막아내면서 ‘원맨쇼’를 펼친 골키퍼 김경민도 베스트11에 포함됐다.

광주와 인천의 경기는 베스트 매치로 선정됐고, 광주는 베스트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K리그1 4라운드 베스트 11

▲MVP: 아사니(광주) ▲FW: 아사니, 루빅손(울산), 주민규(울산) ▲MF: 엄지성(광주), 팔로세비치(서울), 이진현(대전), 세징야(대구) ▲DF: 안영규(광주), 김진혁(대구), 김민혁(대전) ▲GK: 김경민(광주) ▲베스트 팀: 광주 ▲베스트 매치: 광주(5) vs (0)인천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